2023 수능 특강 영어 18강 - 1 - 영작 [1 차]

1	Carl Ritter는 Alexander von Humboldt와 더불어 현대 지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생각되는 독일의 지리학자였다.
	그는 1779년 의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대학 수준에서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선택했고 역사와 지리 서적을 폭넓게 읽었다.
۷	그는 1775년 기사 가중에서 대학교다. 대학 구분에서 그는 그녀들이와 다른어를 한국교로 국사와 사다 사극을 득넓게 밝혔다.
	404시코 8'프로드 C-프로그트 데하에 드러가나 되기 어디 그용하/기크린기에 계취 하다. 무기 취취 과무취 사무취용 고단했다.
3	1814년, Ritter는 Gottingen 대학에 들어가서 지리, 역사, 교육학(가르치기에 관한 학문), 물리, 화학, 광물학, 식물학을 공부했다.
4	1818년에 Ritter는 Frankfurt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5	그 후에 지리학 교수직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 그는 Berlin 대학의 지리 교수로 임용되었다.
6	그는 1828년에 Berlin 지리 학회를 설립했다.
7	그는 Berlin 대학 지리학과에 39년간 재직했다.
8	그는 1859년에 사망했는데, 그 해에 Humboldt 또한 사망했다.



2023 수능 특강 영어 18강 - 2 - 영작 [1 차]

	영국의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William Buckland는 맛있지만 특이한 수프가 차려진 저녁 파티를 연 적이 있었다.
2	그는 손님들에게 주요 재료의 이름을 대 보라고 강하게 제안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아맞히지 못했다.
3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날 앞서 Buckland가 해부했던 악어의 남은 부위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
	랐다.
1	두세 명은 서둘러 방을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7	TAI OL AIRI OR TAIA BE TEMMI.
5	"상상이란 것이 어떤지 보세요."라고 Buckland가 말했다.
6	만약 내가 그것이 거북이나 새 둥지 수프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것이 훌륭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그들의 소화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7	남은 손님들 중 한 명이 대담하게 그 수프가 정말로 해부된 악어로 만들어졌는지 물었다.
8	"(보석)관을 쓴 적이 있는 송아지 머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송아지 머리죠."라고 Buckland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2023 수능 특강 영어 18강 - 3 - 영작 [1 차]

취급으셨다고 있다. 다 폰 도이 단지 나에 되어 되나 단체에 기자단조 나이 어두어 가도 사이 세 쉬로 다고 다니고 있었다.	-1
한겨울이었고 Paul은 몇 주 동안 뒷좌석에 지역 자선 단체에 가져다줄 낡은 옷들을 가득 실은 채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다	-f.
어떤 이유에선지, 그가 차를 몰고 매일 수거 지점을 지나갔지만, 멈추는 것을 마냥 잊어버렸다.	
어느 날 밤, 자정에 그의 교대근무가 끝난 후, Paul은 시내를 지나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거리는 매서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얇은 면 셔츠 위로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걸어가던 한 남자를 제외하고 인적이 끊겼	다
	1.
Paul은 뒷좌석의 옷 더미에서 그 남자에게 줄 코트, 다운 베스트, 몇 켤레의 장갑을 꺼냈고, 우회로로 차를 몰아 모든 일빙	
	l 투 해
- Paul는 첫파크의 굿 디미에서 그 급시에게 잘 꼬르, 나군 메그트, 못 할테의 중요할 까졌고, 구와도도 사할 할이 또는 할증	통행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통행
	통행
	·통행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Paul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Paul에게 고마워했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Paul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Paul에게 고마워했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Paul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Paul에게 고마워했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Paul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Paul에게 고마워했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Paul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Paul에게 고마워했다.	·통행
도로를 통과한 후,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 옷을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Paul은 그에게 달려가 말했다. "난 옷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 Paul은 아직도 그 남자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를 볼 수 있는데, 그는 Paul에게 고마워했다.	·통행



2023 수능 특강 영어 18강 - 4 - 영작 [1 차]

1	1966년 8월 16일, 36세의 수학자 Stephen Smale은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필즈 메달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1300 E 0 E 10 E/ 300 M = 1 1 1 1
	Smale은 고차원 위상 수학이라는 주제에 관해 심오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표현되곤 하는 이
2	Sillate는 고자한 뒤를 구락이다는 구세에 한에 급포이고 제로운 에닥을 제공함으로써 구락되 포질을 어디고 표한되는 이는 이
	ALO HIGHT
	상을 받았다.
3	일반적으로 고급 수준의 수학계를 제외하고는 필즈 메달에 관심이 거의 없다.
4	그러나 1966년에는 Smale의 모스크바행이 그에게 의회 소환장을 발부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5	필즈 메달 수여식과 같은 날, 하원비미활동위원회는 워싱턴에서 Smale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급진적 반전 시위를 조사하기 위
	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수학적 업적과 정치적 행동의 흔치 않은 조합은 특이한,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지닌 왜소한 한 수학자의 인지도를 높였다.
U	구국국 남국의 6시국 66의 근시 ほ는 고맙는 국회한, 표고 일기보는 국고리일 시간 제고한 한 구국시의 단시고일 표였다.
	여호 후 소. 그 오 게취에 어린 묘소 그만 기자 취거요 여자 만그의 베트나지 취거요 비피쉬면 그가요 소개이 취기가 취고에 바
/	열흘 후, Smale은 계획에 없던 모스크바 기자 회견을 열어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비판하며 그것을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비
	유했다.

